

# 大學院 教育課程의 再定立을 위한 提案

李 南 杓

(漢陽大 教育學科)

필자는 大學院 教育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로 大學院 教育의 目的과 使命, 둘째로 大學院에서 수여하는 學位와 그 연계성, 셋째로 大學院 教育 改善의 展望, 넷째로 專門家와 敎養人 養成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서, 大學院 教育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단일화된 획일적 체제를 신축성 있게 개방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1. 머리말

大學院은 단일화된 획일적 체제를 신축성 있게 개방함으로써 지금의 産業社會가 요구하는 高級 專門人力 양성과 學問에 전념하는 우수한 學者 양성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專門 技術人을 양성하기 위한 誘引體制에 메달리는 나머지 高等教育機關이 科學共和國化하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計策을 마련하는 일이 緊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學制는 單線型을 표방하고 있으며 現行 大學院 教育制度는 二元制이다. 이는 文敎部가 모든 敎育 기관을 中央集權的으로 주관하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特異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실인즉, 科學技術 분야의 高級人力 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의 주관 아래 最終 學位를 수여

하는 大學院體制가 또하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學問의 學位와 職業學位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高等學位를 수여하는 大學院 教育의 사명과 오늘의 실태를 살펴면서 대두되는 問題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 2. 大學院 教育의 目的과 使命

우리는 大學院 教育의 目的과 使命을 定義하면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應用 方法을 敎育·연구하며 지도적 人格 陶冶와 獨創의 能力의 함양을 통하여 文化發展에 기여하는 데 있다(漢陽大 大學院 學則 第1章 總則 第1條)’고 하는 내용이 거의 모든 大學院의 경우에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美國의 學制를 도입하여 民主敎育 제도에 입각한 새 敎育을 실시하여 오는 과정에

서 우리나라의 大學院은 그 發展의 초기 단계(1947~1970)에 있어서 주로 大學의 教授要員을 길러내는 임무를 다하였으며, 第2段階(1970~)에 들어서면서부터 産業化 과정에서 國家發展에 크게 기여하는 高級 專門人力의 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制度 면에서 二元化되는 변혁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國家發展의 첨경이 고도의 産業化를 성취하는 데 있다는 至上命題를 내세우고 朴政權(1962~1979)하에서는 경제 성장 위주의 政策目標 구현에 모든 資源을 투입하였다. 2차 대전 후 강대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풀려난 많은 新生國家들이 발전 지향의 國家目標를 책정하면서 활발한 教育改革을 시도하였던 浪漫期가 바로 1960년대였다고 하면 우리도 이때에 教育받은 人力資源의 확보와 증진책을 꾀하면서 經濟成長 지향의 이른바 ‘民族中興’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輸出至上’이라는 표어가 農村의 국민학교 건물에마져도 나부껴 있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그 당시 政府主導下에 이룩하였던 勞動集約的인 수출 산업은 저렴한 勞賃과 좋은 노동 능력에 힘입어 經濟成長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고해 보건대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이땅에 美國의 경제 원조로 경제 부흥의 작업이 점차 다져지기는 하였으며 社會的 混亂이 수습의 길을 찾기 어려웠던 戰後의 시기가 바로 大學人口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大學人口의 확대로 私立大學의 學生數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高等教育의 質的 低下를 우려하는 批判의 소리도 높아졌다. 그래서삼의 法則을 따질 때만도 아니었던 戰後의 이 시기에 美國 政府의 教育 交換 계획의 혜택으로 많은 大學教授들이 美國 大學에서 수학하여 최종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美國 大學에 유학하여 大學院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였다. 비록 이제 와서 美國 偏重의 留學傾向에 따르는 問題의 是非論議가 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大學教育 및 大學院 教育의 체제가 美國의 원조에 힘입어 다져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否認치 못한다.

대체로 초기의 大學院 教育은 1950~'60년대를 통하여 대학 교수 요원의 확보를 위한 少數의 人材 양성을 주된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이르러 大學人口의 대폭 증가 이후로는 大學院 教育도 量的인 팽창 과정을 거쳐 오면서 學問中心의 象牙塔 속에 가졌던 본래의 大學院 教育이 전문적인 고급 인력의 양성과 전문직의 연수 교육 기능 등으로 나누어지는 변모를 보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大學院 총 수는 209 개인데 여기에는 일반대학원 77 개, 전문대학원 132 개 교가 있다.

### 3. 大學院에서의 授與學位와 그 連繫性

高麗에 이어 三國時代에도 太學과 國學에는 博士를 두어 講論을 맡아보게 하였으니 이는 學官으로서 最高 職分임을 文獻備考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日帝 植民地 통치하에서 博士學位는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하는 명예로운 표징이어서 그 희소 가치가 대단히 컸었다고 한다.

현행 대학원 교육 제도하에서 수여되는學位에 관한 규정은 1952년에 제정·공포된 教育法 施行令 제124조에 당시되어 있다. 그러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원에서 碩士學位 수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추려 보면 ① 大學院 碩士學位 課程을 수료하여 24~30 학점을 취득하고, ② 1종의 外國語試驗과 綜合試驗에 합격하여, ③ 論文審査와 口頭試驗에 통과하여야만 된다. 현재 碩士學位의 종류는 27종이다.

博士學位는 한때 限時的으로 실시하였던 舊制 박사학위와 新制의 박사학위 과정을 통하여 그 소지자가 국내에서 대폭 늘어났으며, 또한 外國에서 돌아오는 博士學位 취득자들이 많으므로 이제와는 大學教授의 신규 채용 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資格條件으로 되었다.

대체로 박사학위의 수여 요건을 살펴 보면 ① 60~80 학점 이상 취득, ② 평점 3.0 이상, ③ 2종의 외국어 시험 및 박사학위 종합 시험 합격자, ④ 입학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되

어 있다. 현직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學科數는 모두 1,004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19종의 博士學位가 수여되고 있다.

高等敎育의 3대 機能을 敎授·研究·奉仕라고 할 때에 이는 大學院 敎育體制 속에서만 더 크게 구현 가능하다. 최고의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는 노벨賞을 받은 學者들이 大學院課程을 지도하는 敎授이며 또한 研究하는 碩學들임을 先進國의 事例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高等敎育의 大衆化 물결에 따라 젊은이들이 通過儀禮를 위해서 大學을 거쳐가는 경향을 보게 된다. 그래서 진실로 심오한 學問研究에 헌신하는 젊은 엘리트 확보를 위한 敎育은 大學院 中心의 과정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論議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高級人力과 專門家 양성을 위하여 流出되었던 高級頭腦의 國內 誘引에 힘써 오면서 大學院 中心의 科學技術敎育과 研究를 위한 機構가 1970년 초에 새로이 설치되었다.

高級人力의 계속적 수요는 2000년대를 향한 國家發展의 目標 成就를 위하여 基礎科學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大學院 學生數의 증가와 대학원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計策 樹立은 근래에 두드러지게 學界에 떠오르는 문제로 되어 있다.

실정이 이러하므로 大學院 敎育은 불가피하게 개방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專門大學院의 설치 증가를 보았다. 전문직의 연수 재敎育 기능을 맡은 전문대학원이 특히 '6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모두 132개가 된다.

전문대학원은 夜間制의 경우 5學期制이며, 季節制의 경우 6學期制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27종의 碩士學位(석사)가 수여되고 있다. 한때 전문대학원의 學位는 일반대학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博士課程 진학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差別이 없어졌다.

우리나라의 現行 大學院制度는 이런 식으로 二元化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韓國科學技術研究所와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설치된 大學院이 있어서 특이한 二元制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大學院 敎育의 目的과 體制를 바로 정비하여

大學院 敎育의 質的 向上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청된다.

앞에서 大學院 敎育의 開放體制에 언급하였거니와 여기에는 碩·博士課程의 連繫를 統合 또는 伸縮性 있게 운용하는 前提가 요청된다. 학교 요람이나 안내서에 專攻分野에 따라 세분화된 과정들이 나열·소개되어 있지만, 中核課程이 너무 廣域化되는 식으로 設講 형식만 과시할 따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大學院에서는 在學 年限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기에 입학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기에 졸업하는 지금의 단일화된 제도를 개선하여 碩·博士學位 課程의 운영을 통합할 필요도 생긴다. 그리하여 같은 전공 분야에서 최종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碩士 과정을 거치지 碩士學位論文을 면제하고 그대신 博士 과정 이수를 허락하는 美國의 제도를 받아들일만도 하다. 물론 이는 美國의 大學院에서도 일부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大學院 機構가 아직도 專任敎授陣과 실험실 연구 시설면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本 大學의 부속 기관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大學院의 경우에는 實現 容易한 문제가 아님도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한 학생에게는 두 가지 專攻分野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와 大學院間의 學點을 認定·交換하는 제도의 활용도 신축성 있게 실시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碩·博士學位 課程의 連繫性을 논의할 때에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가 隣接分野에서 오는 專攻 變更을 수용하는 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이다. 學士學位(석사)가 碩士學位(석사)로 명칭이 그대로 연결되어야만 專攻의 同一性을 인정한다는 지금의 폐쇄적 풍토를 개선하여 學際間의 交互補充的 特徵을 살피는 데에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 4. 大學院 敎育 改善의 展望

근래에 政府의 歲計剩餘金에서 3천억 원을 基礎科學研究의 활성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論議가 일게 되면서 기초과학 육성의 方案이 마련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인즉 政府의 3천억 원 한도 안에서 특별 지원을 기반으

로 하여 2000년까지 1조 원의 기금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尖端技術의 도입과 개발 활성화에 치중하여 尖端産業 발전에 최대한의 투자를 실시하여 오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이번의 基礎科學研究 活性化 方案은 大學의 研究資源과 潛在力量을 환용하여 2001년까지 20개의 基礎科學研究所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國家間的 점단 산업 발전 경쟁을 치러낼 수 있는 技術研究·開發의 源泉을 다져 나가는 데 重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方案의 구현을 통하여 앞으로 大學에서는 博士後課程의 제도를 확충하여 高級 研究頭腦를 대량으로 양성·확보함으로써 國際間的 學術交流 主役을 담당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大學院 教育의 國際化 水準 유지가 可能하게 될 전망이다.

기초과학의 연구·개발 활성화가 약속하는 또 하나의 跳躍은 美國 유타大學의 尖端技術開發工業園地和 같이 產學協同으로 經濟開發의 실적을 거두는 일이다. 이곳에는 56개의 企業이 있는데 大學 캠퍼스에 인접하여 있는 工業園地라고는 하되 大學研究所의 集結地와도 같다. 이것은 참으로 實用主義的 構想에서 오는 美國 大學의 產物이라고 하겠다. 大學의 高級頭腦가 實驗室에서 시작하는 事業原型을 가져다가 商品化하는 功業 단지를 캠퍼스 옆에다 둬으로써 經濟所得을 거두는 產學協同體制의 실효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곳 園地에서는 宇宙工學에서부터 血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企業發展의 실효를 실제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는 政府·大學·企業의 協同體制라는 틀 속에다 投入하는 막대한 財源의 확보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大學院 體制의 운영을 신축성 있게 개방하는 일이다.

앞에서 大學院間的 협동에 의한 學點認定制度에 언급하였거니와 美國 달라스市에는 通信工學의 利器를 활용하는 大學院 教育의 協同機構가 있다. 이곳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라먼트와 코린스 레이디오 등의 미국 굴지의 기업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中견 人員들을 위하여 그들 공장 구내에 受容所를 두고 工學技術系의 碩士課程 學

點을 취득할 수 있는 教育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듣진대 서울 근교의 半月工業園地에 들어 있는 企業體에서 근무하는 中견 엔지니어들도 근무지에서 受講 가능한 이러한 시설의 支援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는 漢陽大 分校가 있으나 본교에는 大學院課程을 들 수 없다는 教育法施行令의 規制 때문에 이 問題의 해결을 위한 이야기의 발전이 源泉의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거듭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大學院 教育體制는 科學技術과 産業經濟의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國際的 競爭力을 기를 수 있는 潛在資源이므로 이의 伸縮性 있는 개편 운영으로 國際的 水準에 이르러야 하는 時急한 과제를 안고 있다.

컴퓨터, 레이저 디스크, 데이터 베이스 등으로 연결되는 超知能의 活用網이 형성되어 國際間的 정보 교류가 급속하게 활발해진다고 전망할 때 教授·研究活動은 高等教育의 專有物이 될 수 없다. 大學 4년의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겠으며 學習時期 또한 生涯로 연장될 수도 있겠다. 고도의 專門知識이 集中化·高等化 경향을 보이는 데서 教科書와 講義室 위주의 高等教育 기관은 크게 변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政府의 支援에만 기대할 수 없는 데서 現存 大學院 間に 생겨날 存續이나 發展이나 의 경쟁은 앞으로 그 양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情報科學과 技術이 고도로 발전하는데 따라 學校에서의 學習量은 증가하며 學習速度가 또한 5,6배 빨라져야 한다는 專門家의 시나리오가 있다.

高等學校와 大學에서의 엄청난 學習 時間의 낭비를 증가된 學習量의 섭취에 돌려야 하는 데서 大學院 教育體制의 변화에도 마땅히 대비해야 하는 計策의 마련이 필요하다. 學年制와 學期制의 운영을 신축성 있게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教育의 時期나 期間보다도 教育의 內容을 規制하는 大學院 教育制度의 개혁이 그 첫 과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改革의 主導者가 누구냐의 문제를 度外視할 수 없다. 中央集權的

體制을 전제로 한다면 問題解決의 方向은 原則上 단순하고도 自明하다. 즉 國立大學과 國立研究機關 最優先의 順位를 내세우면 된다.

그러나 民主的 開放體制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大學院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評價 強化의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 성과를 거두느냐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즉, 이 難題를 단순화하여 우리는 國際的 水準의 大學院 教育發展을 기약하는 大學院 教育 評價 장치나 기구의 활성화를 강력히 주창하게 된다.

### 5. 專門家와 教養人 養成

日本에는 열세 차례 다녀갔지만 韓國에는 初行이라면서 1976년에 서울에 왔던 피터 드릭커는 韓國의 經濟成長을 아무 私心없이 칭찬한다면서 “은통 소란하기만 한 世上에서 韓國은 希望이요, 成就요 그리고 成功이다”라고 말하였다. 經濟發展의 밑천을 가진 것도 없이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폐허에서 일어나 經濟成長의 成功 事例가 된 韓國이 내세울 수 있었던 唯一한 밑천은 教育받은 人口의 資源이요, 근실한 勞動力이었다.

피터 드릭커의 말에 따르면, 이제 다가온 頭腦集約的인 産業化時代에서는 자동차나 가전 제품을 대량 생산하였듯이 知識情報을 대량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知識의 生産性이 경제 성취의 關鍵이요, 경제력과 생산성의 源泉이 되며 知識은 이미 세 時代의 제 1차 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知識經濟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勞動價值說은 工業化時代의 유물이 되었으며 이는 知識價值說로 대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科學技術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體制의 개발을 꾀하면서 이를 大學院 教育의 強化 方案으로 삼는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그 두드러진 실례의 하나가 政府 投資에 의하여 설치된 科技大學院이다. 우리는 科學技術에 터한 經濟開發과 成長으로 과열된 '70년대를 맞아 高等教育을 專門人力의 양성 기관으로 보는 視點에서 오직 科學技術을 重視하는 改革 風潮 속에 휘말렸다. 그리하여 大學에서는 하드 사이언스만이 學問課程의 廣域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의 틀이 大學의 定員 調整을 도맡아 처리하는 文敎官僚을 지배하며 文敎政策의 意思 決定權者들을 지배하고 있는 터이다.

民主主義의 소박한 定義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自己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데 있다고 美國의 文物制度를 시찰하면서 토크빌은 말한 적이 있다. 과열된 경제 개발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文化를 잃고 있으며 自己를 잃고 있다는 反省의 소리가 일고 있다. 科學主義, 物量主義, 社會的 進化論, 相對論 등의 도도한 思潮가 절대 우세한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生態系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터이다. 토인비는 사람이 技術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니와 특정한 우리 文化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科學技術의 樓閣은 약체임을 면치 못한다.

技術이란 요컨대 物質的 複合의 產物로서 우리에게 편리와 안전의 利益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그것을 崇尚하되 崇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결코 生의 意義나 目的과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一言以蔽之하여 技術이 人間社會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脫人間인 技術과 人間을 同格化할 수는 없는 것이다.

技術의 정복에서 오는 物量的인 所得, 즉 經濟成長이 人間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는 없으므로 物量的 成功이 人間을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데서 人間의 自己喪失이 온다. 오늘의 우리 教育이 自己回復의 마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가 오래 된다. 오직 전문 인력 양성의 기구로서 그 구실을 다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大學教授는 대개 專門家이다. 자기의 細分化된 專攻領域에서 연구의 진전과 업적을 이룩하는 데만 專念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대개 그들은 人間으로서 未完成이다. 眞理의 심오한 탐구를 통하여 自己完成을 기약하는 선비精神이 부족하기 때문에 教授와 研究에 헌신하였던 우리나라의 太學과 國學의 博士들이나 中世 유럽 大學의 전통을 지녀오는 西歐 大學에서 볼 수 있는 人間性을 깨우쳐 주는 教化育成의 길잡이로서의 教授들이 아니다. 大學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과 마주칠 적에 과연 참된 人間教養을 쌓는 공부의 길로 인도받을 기회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는 묻게 된다.

진실로 大學 敎育課程의 中核은 무엇인가? 이런 反省에 이어 大學院에 進학하는 高級頭腦의 잠재 역량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敎育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우리는 서둘러야 할 때인 것같다. 우리의 高等教育機關 앞에는 중대한 挑戰 못지 않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沒價値 또는 價値中立을 내세우는 하드 사이언스의 전문가 교수들이 政治權力과 때로는 軍部實勢와 짝 지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人間의 生態系가 받고 있는 위험을 念頭에 두지 않고 科學技術의 연구 발전 에만 얽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의 선비가 세상을 인도하고 풀이 하며 답스, 프로이드, 베버 그리고 철학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精神分析의 기법으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경험을 시원하게 풀이했다 함도 過去의 일이다. 科學主義 思潮가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時代인지라 自然科學이 人間科學을 누르고 외연하게 서 있다. 이것은 大學의 學生 定員, 敎授 充員, 大學의 行· 財政을 다루는 모든 면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의 實相이다.

大學圖書館이 데이터 베이스가 되고 모든 실험 기자재와 행정·재정의 실태 자료가 중앙 전산실에 투입되며, 그래서 모든 것이 科學化되어 가는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 있다. 大學에서 人文敎養 과목이 科學의 이름을 달고 살아 남게 될 것만 같다. 科學의 커다란 그림자가 大學을 덮고 있다.

科學技術의 힘이 팽대하여 가니 大學이 科學 共和國化할 것만도 같다. 이를 견제하는 計策

으로 ‘集權的 平等化’와 ‘分權的 極大化’를 기도하는 두 가지 論議가 있다. 이런 論議의 衡平을 택하는 계획이 賢明할진대 우리는 人間意識의 회복을 염원하게 된다. 그래서 토크빌의 소박한 民主主義의 定義에 따라 人間意識의 회복을 깨닫는 敎養을 갖춘 專門家를 배출하는 데서 우리는 大學의 科學共和國化를 막을 수 있다고 하겠다.

## 6. 맺음말

우리나라의 大學院 敎育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敎授와 研究의 質과 內容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財政 支援을 밖에서 얻어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제가 없이는 公益奉仕의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다. 大學院이 기대할 수 있는 實質的 支援의 源泉은 政府와 企業이다. 그래서 大學院에서 수여하는 名譽博士學位는 초기의 朱·董·傅·3博士를 제외하고는 거개가 內外政·經 要人들에게 바꿨다. 美國 출장에 앞서 명함 인쇄에 맞추어서 長官에게 명예 학위 수여식을 행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大學院 발전 모습에서는 두 개의 財源에서 얻는 研究 支援을 받아 그 業績의 순위로 (美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研究大學 博士課程 大學 및 일반 종합대학의 位階 양상을 볼 수<sup>2</sup>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政經構造는 극단적인 逆피라미드형이다. 모든 것을 最高位層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權한의 유연한 흐름을 보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制약을 넘어서는 大學院 發展의 틀을 잡아야 한다. \*